메이킹북스

책 한 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출판사 메이킹북스의 이야기



"

무인도는 없다

한상경 지음 | 124쪽 | 12,000원

섬은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나서야 무인도라는 의미가 붙었다.

오로지 내 안에서만 존재한
나만의 이 여러 섬들.
내 안에서 한 줄 한 줄 쌓인 이 시간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존재시키려 한다.

"



"

물빛편지

김동호 지음 | 80쪽 | 12,800원

**헤어짐, 잠깐의 빈곤,
몸에 맞춰 줄이는 꿈.**

서툴게 잘라낸 것들을 담은 시집이다.
어설프고 작은 20대의 순간들. 가다듬는
것은 읽는 이의 몫으로 남긴 채, 부디 찬찬
히 짚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가볍게 읽고 깊게 남기를.

"



"

절망, 이렇게 편안한 것을

건사백 지음 | 200쪽 | 12,000원

**생의 경계를 넘나드는
선연한 눈**

절정을 지나버린 변방 어딘가에서,
그늘진 한구석에서 그는 제 몫의 노래를 시작한다.
누구도 이름 붙이지 않은, 무구한 생이
피고 지는 곳. 그곳이 건사백 시의 무대다.

"

연필

자기의 몸을 깎아 내고
뼈를 도려내고도 모자라
고결한 검은 피까지 흘려

그대가 한 일은
참으로 위대하였다.

그대는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그대의
검은 피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메이킹북스
www.makingbooks.co.kr

ISBN 979-11-6791-425-5 03810

값 13,000원

고독한 순례 — 고봉환 · 최귀숙 지음

메이킹북스

고독한 순례

고봉환 · 최귀숙 지음



메이킹북스



저자 고봉환

- 그리스도신학대학교(현, 강서대학교) 졸업
- 제주도 난산그리스도의교회와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
- 월간 문예사조 1999. 03 수필 '수요일 아침' 등단, 1999. 05. 시 '간혹, 동갑내기 아내' 등단

저자 최귀숙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졸업(간호학 석사)
- 보건진료소장 정년 퇴임
- 현재, 청주 행복한요양원 간호과장
- 월간 문예사조 1999. 03 수필 '나의 기쁨' 등단

저서

- 그리움에 목에 메이고
- 외로운 바위
- 참 못났다 그치!
- 잠 못 이루는 밤
- 휘면서 피는 꽃

고독한 순례

고독한 순례

고봉환 · 최귀숙 지음



메이킹북스

고독한 순례

초판 1쇄 발행 2023년 10월 15일

지은이 고봉환 · 최귀숙
펴낸이 장현수
펴낸곳 메이킹북스
출판등록 제 2019-000010호

디자인 최미영
편집 최미영
교정 강인영
마케팅 김소형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912-914호
전화 02-2135-5086
팩스 02-2135-5087
이메일 makingbooks@naver.com
홈페이지 www.makingbooks.co.kr

ISBN 979-11-6791-425-5(03810)
값 13,000원

ⓒ 고봉환 · 최귀숙 2023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와 펴낸곳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이킹북스는 저자님의 소중한 투고 원고를 기다립니다.
출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makingbooks@naver.com로 보내 주세요.

목차



서문 12

1부 가을

가을 1 14
가을 2 15
가을 3 16
가을 4 17
가을 5 18
가을 6 19
가을 7 20
가을 8 21
가을 9 22
가을 10 23
그냥 24
그대들은 25
비밀 26
아내에게 27
이럴 때면 28
자화상 29

2부 영혼의 순례

序詩(서시) 31
가난하신 예수 33
가룟 유다 34
가시 면류관 35
갈망 36
거울 37
거지 나사로 38
거짓 목자 40
고독한 순례 41
골고다 길 42
과부의 하소연 43
그 소년처럼 45

목차



그리스도 46
기다림 47
기도 1 48
기도 2` 49
기도 3 50
기도 4 51
기도의 언어 52
나귀 새끼처럼 53
나의 발을 54
낳고, 낳고, 또 낳고 56
내려놓기 57
누구는 58
눈물이 59
당신은 60
동역자 1 61
동역자 2 62
뒷걸음 64
마라나다 65
마리아의 고백 66
免避(면피) 68
목회자 바울 69
목회자들에게 70
목회자의 본심 72
목회자의 생활 73
목회자의 수고 74
무서운 것 75
믿음 1 76
믿음 2 77
믿음 3 78
믿음 4 79
믿음 5 80
믿음의 王道(왕도) 81
바라보자 82
바울의 간증 83
바울의 기도 84
바울의 동역자들 85
바울의 변론 87
바울의 사명 88

목차



바울의 신앙 89
바울의 열망 91
바울의 전도 92
바울의 진심 93
바울의 질병 94
바울처럼 95
방황 96
베드로 1 97
베드로 2 98
베드로 3 99
베드로의 권면 100
보좌 앞으로 101
복음의 본질 102
복음의 일꾼 103
부활의 아침 104
붙어 있기 105
비누칠 106
빌라도 107
빌라도의 아내 108
사랑 1 109
사랑 2 110
서글픈 밤 111
성도들에게 1 112
성도들에게 2 113
성령 세례 114
성령의 열매 115
세리의 기도 116
세월 117
스데반 118
시련 중에 119
십자가 지고 120
십자가의 길 121
얼굴 122
엠마오의 제자들 123
영적 삶 124
영혼의 닻 125
예배당 1 126
예배당 2 127

목차



예수여! 128
예수 그리스도 1 129
예수 그리스도 2 130
예수쟁이 131
요나의 고백 132
이 세대 133
이방인의 사도 134
자랑 135
장미 136
정녕 당신은? 137
주님을 따라 138
주님을… 139
주의 은혜로 141
직분자들에게 1 142
직분자들에게 2 143
청년 유두고 144
총독 벨릭스 145
편견에 대하여 146
편지 147
하나님의 계획 148
하나님의 소원 149
하나님의 주권 1 150
하나님의 주권 2 151
하나님의 주권 3 152
향유를 부으며 153

3부 최귀숙의 글

간증 - 준비하시는 하나님 155
나의 기쁨 162
모과 165
어머니 167

서문

33년간을 목회하고 은퇴 후에 성경과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니 목회자들의 설교가 세속 윤리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얕은 곳에서 믿는 것만 같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깊은 곳의 기독교 신앙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만 같다.
특히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재차 깨닫고 깊이 생각한 것은 기독교가 결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매우 심오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제 33년간의 목회의 자리를 떠나 예배당이 아닌 서고에서 새벽에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매일 묵상하면서 詩(시)로 표현하였다.
이번 시집은 복음을 위하여 고독한 순례의 길을 걸어간 사도들의 믿음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 쓴 시들이다.
이 시집을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前21사단 포병연대 교우들, 여전도회원들에게 바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서 3:16)

2023. 10. 15
고봉환, 최귀숙

1부
갈



가을 1

때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홀로…

스치는 바람 속에
으스러져 버린 너를 마음을
바람의 바늘로 하나씩 꿰어 보려는 듯.

높푸른 창공에 숨겨온
지우지 못한 그것을
가을이라 부르다.

스산하게 부는 바람 따라나선
단풍을 주워서 가슴에 품으면
너의 거친 숨결이
내 가슴속에서 소리치다.

하여
이 가을엔 낙엽 속에
널 담아
내 마음속에 널 뿌린다.

가을 2

외로운 마음에는
달빛조차 슬프고 어둡다.
뜨거운 태양 비추는 대낮에도
멀리서 오는 노래도 아프게 들린다.

외로움을 느끼면
그리운 얼굴조차 기억 못 한다.
사랑을 한다면
그리움을 알게 된다지만
유난히 오늘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다.

낙엽이 물러가고
흰 눈 펄펄 내리면
나의 외로움도
어디론가 숨지나 않을까?

어디선가 갑작스레 나타날
그 이름을 외로움이라 부르자니
사랑이 더 멀리 도망가지나 않을까

차마, 차마, 차마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가을이다.

가을 3

10월을 넘기면
그녀의 그윽한 눈매를
잊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을 넘기면
그에게 드릴 것 없을 것 같아 애가 탑니다.
그를 보내지 않을 방법은
落葉 사이에 예쁘게 찍힌
그의 발자국을 주워서
내 목마른 영혼에 고이 접어 두렵니다.

落葉(낙엽) 지는 11월
내 영혼에 고이 담아둔 그를 꺼내어
첫눈 펄펄 내리는 날에
거기에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가을이 오면
내 영혼을 열고
낙엽 사이에 그가 서 있을 것입니다.

가을 4

해바라기 고개 숙이면
임이 오신다고 하던데
코스모스 고개 내밀어도
아직 오시지 않은 임

10월의 들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귀를 사방에 열어
임 오는 걸음 소리 듣고자 하나
임의 붉은 옷자락 스치는 사이
코스모스 고개 숙이고 말았다.

온 들녘 낙엽 지고
코스모스 숨어질 때
내 임에게 고백하지 못한
내 영혼의 숨결까지 가져가라

이 가을에 정녕 홀로 있으므로
내 영혼의 빛줄기마저
빈 들녘을 준비하는 서러움이다.

이 가을에는
정녕 나 호올로
저 들녘에서 임 가시는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는가?

가을 5

드디어 그곳에 이르면
더 나가지 못해
그는 모든 것을 벗어야 했다.

들녘의 배부름이 보이지 않을 때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더 가까이 있음을 안다.
그곳, 모든 것 다 내어준 다음에
비로소
그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가진 것 다 내어준 후에
가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비로소 그의 끝이 왔다.

이제 남은 일은
빈 들판에 잠시 홀로 서서
다하지 못한 내 영혼의 노래로
그를 고이 보내드리는 것이다,

가을 6

외로운 가을이 없다면 사랑도 없을 것이다.
외로움을 부르는 내 가을이
그의 부드러운 봄을
잉태하는 줄 누가 알겠는가?

내 외로움을
낙엽 속에 깊이 묻을수록
그의 봄은 더욱 파릇해진다.

그러나 결코 모르리라
낙엽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내 외로움을

이렇게 그를 위하여
천 년간, 만 년간 움츠린 까닭에
그의 봄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봄은 없었을 것이고
내 외로움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내 외로움을
그의 봄을 위해
낙엽 떨구어지는 황야로 힘껏 던지다.

가을 7

그리움만 머무는 山(산)에 오르면
붉은 새 옷 입은 그가 사뿐히 기다린다.

언제나 기다림으로 오셨다가
그리움으로 사라지는 그대
보내지 않으면
영영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내 그리움의 창에 이름 적어 놓는다.
잃어버린 가을(詩)이라고…

산 저편에서 그림자 드리울 때에
외로운 가슴속으로
외쳐대는 소리가 있다.

시인이여,
천년만년 그리움을 품고
이 가을을 외로워하라

가을 8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수많은 달콤한 시를 써낸들
저 가을 하늘만 할까?

아무리 순도가 높은 금이라 하여도
잊어서는 안 될 첫 순정이라 하여도
가장 아름답고 맑은 시를 쓴다면
저 가을 하늘만큼이나 될까?

가을에 농익은 포도의 끝은
내 깊은 가슴 속에 품은 너의 유방

너를 위해 가을에 쓰는 시는
가을 하늘 끝에서 붉은 단풍을 따다가
말 없는 너에게 보내는 戀書(연서)

가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시인이여 외로워하라!

가을 9

눈 끝에 붙은 너를 못 본 채
이제야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가을 아침과 맞닿다.

이른 아침 볼 끝에 와닿는 찬바람은
긴 밤을 창문 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날 기다린 너의 고독한 입맞춤

너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내게로 다가선 너의 체온은
나의 외로운 영혼을 뜨겁게 해 준다.

잃어버린 詩語(시어)를
내 영혼의 창을 열어서 보도록
가을의 날개를 이슬에 젖혀 가면서
넌 그곳에서 온 밤을 떨었다.
이제
너의 고독한 입맞춤으로
이 가을에 죽은 詩(시)가 살아나다.

가을 10

가을은
이미 늦여름 끝자락을 힘껏 밀쳐내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으려는
여름을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멀지 않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가을은 함성을 지르며
이미 우리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가을에는
잠시 사색하며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걸음 밑에 숨겨진
겨울을 생각해 보시요

가을의 그 짓눌림 속에
겨울이 이미
또 왔을 터이니까요
오고 가는 것이 삶
그러나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
가을이란 이름으로

그냥

잘 지내시오

건강하시죠

일은 잘 다니시오

그때가 좋았어요

다음에 식사나 같이 할까요?

- 근데, 왜 전화를 하셨는지

음… 그냥,

- 뚜, 뚜 -

저런,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대들은

낯선 곳 빙하의 양구에서 만난 그대들은
이삿짐을 여러 번 싸고, 돌고 돌아
마음을 오랫동안 한곳에 두지 못하고
늘 아쉬운 영혼의 외침으로

이제, 이곳이 하나, 하나의 이름을 영혼에 새기며
여기가 우리가 섬길 곳 21사단 포병연대
모처럼 모두가 한 믿음으로 뭉쳐

저 젊은 장병들 영혼에 복음의 불을 지피며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보고
저들의 회심을 통해서 내일의 교회를 보니

그래 우리는 전방의 최전선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했다.

아! 前 21사단 포병연대 교우, 여전도회
그대들은 진실로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였고
그대들은 통해 복음의 큰일을 이루었으니
기뻤고, 행복했으며, 사랑합니다.

비밀

그냥 두어도 좋지 않을까
나 홀로 마음 깊이 꽁꽁 숨겨 둔다면

간혹 바람이 불어 날아가면
그 끝을 붙잡고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
가랑비도 같이 내려주면 좋겠지

때론
가랑비를 맞으며 홀로 걸을 때마다
함박눈 속으로 마냥 정처 없이 걸어도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두는 것도 좋겠지

정은 정으로서만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줄 정도, 받을 정도
이젠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 안에 꽁꽁 숨기다.

마음은 시들어지고
그리움의 성 여럿을 쌓아 놓을 때쯤이면
오직 나만의 고독으로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

아내에게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나 보다
잘 기억하고 순간 대처를 잘하던
언제, 누가 와도 접대를 잘하던
늘 웃는 낯으로 다정하기만 하더니
이제 고왔던 그 모습은 줄어들고

당신의 흰 머리카락은 날 야단치듯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만 가고

무엇으로 당신의 그 수고를
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그 가벼운 한마디뿐

긴 세월을 동역해 준 그 헌신에
내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사랑한다는 얄팍한 한마디로

그러나 당신의 사랑보다
그 깊은 마음에 비해 터무니없으니

그저 당신에게 큰 죄인입니다.

이럴 때면

나 이렇게 마음 아픈 날이면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 보겠다

나 이렇게 외로운 날이라면
나 보고픈 이 어디 있냐고
선운사에 가서 소리 질러 보겠다

가슴 쥐어뜯으며 아파하지 말고
선운사 뒷마당에 가서
붉은 동백 이파리에 내 붉은 피 토하면
동백의 슬픔인지
내 슬픔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동백이 활짝 핀 이른 새벽이면
더욱 좋겠지

그렇게 내 마음을 토하고 나면
동백은 내 고독의 꽃으로
선운사를 붉게 태우고 있을 게다.

자화상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시작되는
철없던 시절 무식하고 설익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자신만이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여기며

지금도 용서를 구해야 할,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하였던 일들이

불타는 청춘의 열정으로 오직 앞만 보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기에
아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약속을 믿었고, 믿었으며, 믿었기에 더 큰 상처가 되어

하지만,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것들을 손에서 놓쳐 버렸을 때는 이미 늦어 버린 일들이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미숙했다는 자체도 느끼지 못했던 때
그래 그때는 그것이 진실이었고, 나의 전부였기에

나로 인해 그들 영혼에 상처를 주었기에
차마 잊었다고, 지난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뼈아픈 일들이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에
내 영혼으로 날마다 아파하며, 신음하노라.



2부 영혼의 순례

序詩(서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천 년이 하루와 같을지라도
우리네는
한 시간마저도 천 년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때론
하나님이 보낸 이들을
문전박대를 했으나

그래도
숨을 죽이며
이제나저제나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 정녕 그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먼 길을 별만 보고 오는 이들이
그때를 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열어 주지 않던
예루살렘의 크고 묵중한 문이
서서히 빈틈을 내면서

삐
끄
덕

그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사이로 스며드는
저 가늘고 여린 빛이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신호로

주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4)

가난하신 예수

주님은 탄생부터 기이하셨죠?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던 주님
그것도 여행 중 여관 곁 가에서
주님은 누울 집조차 없으셨죠?
짐승들도 쉴 집이 있었다 하시며

주님은 흔한 좋은 신발도 없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못 본
주님은 돈주머니도 없으셨지요
생선을 잡아 세금을 내셔야 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내내 어려우셨던

주님은 따뜻한 식사마저 못하신
돌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을 받은
주님이 가장 부유하신 때는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타신 일
십자가를 지실 때 홍포를 입으신

오!, 주여, 당신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12)

가룟 유다

어쩌면 좋은가? 이 사람을
민족을 사랑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열렬하고 순수하였던 청년이거늘

야망이 너무 컸던가?
욕심이 지나쳤던가?
변두리 존재로 멸시를 느꼈던가?
은 30냥에 한 사람의 목숨 값을
아니 겨우 30냥에 스승을 넘기니

두려웠던 것일까?
후회를 했던 것일까?
부끄러웠던 것일까?
슬프다, 유다야, 정녕 네가 한 일

군중의 함성과 모략자의 비웃음에
내면의 소리와 삶의 절망과 침묵
그대는 영원히 소외된 존재로

그 가룟 유다가 내 안에도 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마가복음 3:19)

가시 면류관

모두가 외면하며 홀로 자라오던
깊은 산에서 스스로 지켜오던
나그네의 삶에 깊게 박혀 온
네가 이제는 메시아의 머리에 관으로

가시 하나하나마다
우리네의 욕심과 교만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온 마디마디를 찔러
그가 흘리신 핏방울 한 방울마다
우리네 죄악을 씻겨 내시려는 듯

가시, 하나, 하나에 찔려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피를
주님이 쓰신 저 가시 면류관을
쓸모없고 조롱받던 너 가시야!
고난의 주님을 통해 너는 이제
보라, 고난의 이름으로 승리한
누가 저 가시 면류관을 쓸 것인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마가복음 15:17)

갈망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갖고 싶은 욕심이요
항상 무언가 추구하였습니다.
금세 사라질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로 무의미한 세월만 보내는 듯한
삶의 짐을 지고 돌고, 돌고 도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기도하고는
다시 주섬주섬 싸 들고 오다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진정 한 줄기 빛 가운데서 만난다면

저 영생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이까짓 것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갈구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갈구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 (요한복음 4:15)

거울

가장 순수하고 멋진 모습이 보이는
가장 좋은 면들만 보고 싶게 만드는
작은 흠이라도 들키고 마는 그 앞에

거울을 떠나면
곱게 단장하며 웃던 모습은 어디로
밖에서 만나는 저들이 바로 내 거울
저들 눈과 생각에 비친 모습은?
저들의 거울을 내가 볼 수 없기에
내 거울에 비친 나를 곱게 지킬 수밖에
두 개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정말, 정말 똑같게 보이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기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
성령의 감동으로 삶 속에 채우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히히, 너야 바로 너,
"넌 참 그리스도거든"이라고 듣기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야고보서 1:23)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명함 한 장 없었던
내 땅 한 평도 없었던
남의 집을 얻어 겨우 살았던
어느 모임이건 뒷자리에서
갈 곳은 많으나 반가워하지 않는
인생살이 실패자 나사로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결심
정직하게 살겠다는 선한 양심
내 땀 흘려 사는 것이 보람인
하나님 없이 잘사는 것보다
말씀을 떠나 호사하는 것보다
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살겠노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명함과 직함이 그리 중요한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먼저인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알 수 있나?
어리석은 인간들아, 한심한 인간
보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대들이 아는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저 아래를 자세히 보라
지옥 불에서 탄식하는
후손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늦은 후회로 나사로를 바라보라

인생들아, 인생들아
돌이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셈이 남아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자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보자

나사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나사로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행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속지 말고
사람의 겉 형편으로 판단 말고
영생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진실하고 옳게 살아가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누가복음 16:20)

거짓 목자

노아의 시절엔 8명의 의인이 남고
아브라함 땐 50명 의인이 없었으니
예레미야는 1명의 의인도 없다 하여
가슴 치며 통곡했는데

이 시대엔 나는
노아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못되고
예레미야처럼 영혼이 불타지 못하니

참담한 내 모습을 돌아보니
거짓 목자였고, 헛된 삶을 살았으니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해
돌이켜보니 나를 위해 살았다.

牧養(목양)을 핑계로
모든 영광과 충족을 내게로 돌렸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어찌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나

그래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고 있네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요한복음 10:12)

고독한 순례

아무도 살피지 않는 곳으로
무엇도 이득이 되지 않는 곳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누구도 수고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곳에 가야만 한다.

오늘도 가장 더러운 것을 만지고
제일 지저분한 것에 마음을 쓰며
무관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 가자

태양은 땅에 빛을 발사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열매는 익어 땅에 떨어지고
벼는 고개 숙여 내놓듯이

저 아래를 밝고, 온전케 하고자
주님도 말없이 영문 밖에 가셨듯
그 뒤를 따라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따라가자
가야만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26)

골고다 길

저 언덕을 누가 올라갔던가?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
죽을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
참 멀고 높기도 하다.

올라갈수록 멀다
십자가의 무게에 익숙할 쯤
죽음은 가장 잔인하게 기다리고

잔혹하게 내리치는 철날 채찍에
작은 돌에 부딪혀 뿌려지는 피
풀잎 사이로 덮어지는 저 피를
맨발 사이에 흘러내리는 핏방울
온통 붉은 색으로 덮인 저 언덕

주님이 한번 걸으신 저 언덕에
한 방울 피마다 나의 죄의 값이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저 십자가
저 길을 숨죽이고 따라야 하나니.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과부의 하소연

들어보시라.
홀로 살아온 한 많은 인생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노력을
세상에 그 많은 도둑들이
가져갈 게 없었는지.
골탕 먹일 정도로 만만했던지
내 살다 살다 이런 억울한 일을.

와서 보시오.
땀 흘리지 않고 모은 게 있는지.
홀로 살면서 나쁜 짓을 했는지.
왜 내 말은 안 듣고
소문만 듣고 날 모함하고 판단을
약한 나를 이리 억울하게 하고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해도

이러면 안 되지, 암 안 되지 안 돼.
날마다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리라.
천하에 비뚤어진 판결이라도
내 진심을 알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명예와 억울한 소문을 지우겠다.
오늘 밤도 이리도 긴가?
내일 날 밝으면 다시 나가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와 눈물로
오가는 이들이 듣도록 외치겠다.

아이고, 아이고 못 살겠네, 정말
세상사 이리 불공평해서 살겠는가

보시오, 나으리, 높은 양반들
내 하찮은 인생이오나

그대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왔소
그대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짓뿐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해 주시오.
사실이 그런가 판단을 해 주오.

아니, 아니다.
세상사 너희들이 날 모른다 해도
어떤 소문이든지, 판단하든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에게 直告(직고)하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라 아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누가복음 18:3)

그 소년처럼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아이
자기의 것을 감추고
남들이 내놓기를 재촉하던 때
철없는 아이가 내놓은 것들

왜?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도
왜? 나이 먹을수록 그리
세상 이치에만 밝아지고
약아빠진 생각에 눈치만 늘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요 못된

내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만 느니
저 꼬마만도 못한 이 하찮은 것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를 조금만 양보한다면
부족한 이들에게 조금만 배려하면
저 꼬마의 헌신처럼 아름다울 터
주여! 나의 작은 것 받으시길…

그리스도

그대는 아십니까? 그분을
그대는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그대는 느끼십니까? 그분을

죄인들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그분을 만난 이들은 언제나
그분을 아는 이들은 항상
그분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

평생의 소원 하나는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것

그분의 피 흘리신 면류관을
그분의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진정 만져 볼 수 있기를
그러나 보지 않고 믿으라 하시니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길…

기다림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면
여전히 땅속에서 소리쳐 오는
아벨의 피 소리가 들려오고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면
저 골목의 끝에서
당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면
당신의 소곤소곤한 말씀이
귓전을 울려 주고

당신의 책을 열면
당신이 내 영혼에 채워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 새벽 따라
당신의 따스한 온기로 느끼고

오늘 오시려는가 기다려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태복음 27:33)

기도 1

아직 만물이 잠든 이른 시간에
아무도 오르지 않은 골고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빈 무덤
세찬 파도만 불어오는 갈보리바다
오병이어로 배를 채워 주신 들녘
혈루병을 고쳐 주시던 그곳

이른 시간부터 이 모든 것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 기쁨
실지 그곳을 가보지 않았으나
말씀을 열고 주님과 함께 그곳을 순례하면
빛은 창 안으로 스며들고

말씀을 덮고
주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이름을
내 영혼의 수첩을 열고
하나씩 불러가며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어느새 날은 밝아
그렇게 하루의 문이 열려지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기도 2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기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신세타령도 좋고
하소연도 좋고
오늘의 걱정도 좋으며
얽히고설킨 너와의 관계라도

무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진심으로 아뢰면
그것이 기도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7)

기도 3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그들은 눈물이 많은 자들이니

주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치고 쥐어뜯으며
기도하자, 기도하자

나는 죄인이오니라고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주여!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는 기도 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6)

기도 4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저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주시는
영혼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네

항상 간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중에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찾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의 안녕을
그대의 삶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말며
현실의 난감한 일들이 생기지 않길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감사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에게

오! 은혜의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확실히 열린다고 하셨으니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더디 마옵소서!

기도의 언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
가슴속 타들어 오는 불길로
끝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수백 마디 언어보다
수천 가락의 노래보다
주님이 들으시는 마음으로

천사의 언어를 주신다고 하여도
천상의 언어로 채우신다고 하여도
주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죄인의 눈물뿐이니 부끄러워
그 사랑을 감히 받지 못합니다.

내 입술을 불로 태워 주시고
내 영혼을 당신의 피로 채워 주시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만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사도행전 2:26)

나귀 새끼처럼

아무런 것도 모른 채
늘 하던 그대로 있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묵묵히 내줄 수 있는

항상 하던 그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
예수님에게로 가라하시니 묵묵히 순종할 뿐

그 일이 주님의 죽음의 길이니
주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일이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흔드는
주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호산나!

주여! 당신을 태워드릴 수 있는
이름 없는 나귀 새끼가 되어

오늘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사 그 길이 골고다로 갈지라도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 11:7)

나의 발을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주님께서 손수 물을 준비하시고
나의 발을 내놓으라 하시니

나의 발은 세상을 휘젓고 다닌
나의 발은 죄의 때를 묻혀 온
나의 발은 차마 보일 수 없는

못생기고 때가 가득히 묻은 발
흙먼지와 세상 무좀이 가득한
나도 미처 몰랐던 나의 발을
나이 발이 이렇게 된 줄 알았다면

이제
때 묻은 발을 내밀어야 하는 곤혹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나의 발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민 발
그 발을 주님이 씻겨 주시니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발에서 씻겨진 모든 것들
더럽고 냄새나던 찌꺼기가 사라진
물속에 담긴 나의 발의 때를
저 멀리, 아주 멀리 던져지니

아, 몸도 손도 다 저 물에 담아
더욱 멀리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주님에게
그대의 발을 내 놓으시라.

그대의 발이 어떠하였던
그대의 발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님의 사랑에 씻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발을 다시 더럽게 하지 마시라.

보라, 이제 나의 발은 깨끗하니
이 발은
세상을 휘젓던 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요한복음 13:6)

낳고, 낳고, 또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악악은 악악악을 낳고
악악악은 악악악악을 낳고

또 악을 악에게서 악을
낳고, 낳고, 또 낳고

세상에 악이 번창하더라.

선은 선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니
선은 선에게서 악을 낳고
악이 선으로 되길 바라나
악이 선이 될 수 없고
선이 악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낳고, 낳고, 또 낳고
이 세상에 선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

내려놓기

세상에서 한 평의 땅을 못 가져도
사는 동안 삶의 무거운 짐을 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라.

아등바등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핑계치 말라
이미 마음이 그것만 의존하였다면
믿음에서 떠난 것을 自認하는 것
진리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며
누가 싸구려 복음을 외치는가?

거짓 진리와 철학을 따르지 말고
헛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홀 나서라.

하나님의 도움만 간구하고 믿으며
진정 믿음의 경건으로 삶을 누리라.
오직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
주 오실 때 칭찬 듣는 믿음을 갖자.

주님이 그때 내 이름을 불러 주시길.

누구는

누구는 몇 날을 깊은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목 터지라고 소리를 내서
득음했다는데

누구는 명배우가 되려고
대본 한 줄, 한 글자를 잊지 않으려고

누구는 명가수가 되려고
노래 한 곡절, 한 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누구는 몇십 년을
쪽방에서 잠자며 배를 곯고 살면서
겨우 기술을 하나 배웠다는데

누구는 최고의 친절과 아량을 베풀어
신임을 얻고자 한 것은
한 건의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는데

그래 너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눈물이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막달라는 빈 무덤 앞에서 크게
베드로는 모닥불 뒤에서
그렇게 울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병든 자들의 아픔을 보시고
부르짖은 이들의 소리를 듣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청이 쉬게
그렇게 목 놓아 우셨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 눈물이 없는가?
정말
말라 버렸는가?
아님
너무 지쳐서
울 겨를마저 없는가?

진정 오늘은 가슴 쥐어뜯어 보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35)

당신은

당신은 내게 모든 피를 뿌리시고
당신은 내게 모든 살을 찢으셨고
당신은 내게 모든 사랑 주셨으나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당신에게는 선심 쓰는 껍데기만
그래도 당신은 웃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는
제 영혼을 지키고 있나 봅니다.

제가 당신에게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땐 나에게도
당신의 십자가 흔적이 남겠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17)

동역자 I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따르도록
은혜와 말씀에 확신을 가진 이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곁에서 믿어 주고
가장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 주는

그러나 사람들은 약고 얄팍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고
외적 환경을 판단하여 선을 그으니
그들은 자신이 옳은 판단이라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같은 판단을

하지만 가장 큰 허물은 내게 있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하여도
내가 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러므로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평생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진실한 목회자로 살길 간구합니다.

동역자 2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여!
그대는 왜 목회자가 되려 합니까?
아니 그대는 왜 목회자입니까?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만 증거하여 깨닫도록 하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거룩한 직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을 잘 선별하여
존경받는 이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맡기지 말고
세상 이치에 밝으면 조심해야 하니
자칭 종교성이 있다고 우쭐되면
이는 더 위험한 인물로 조심하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대입니다.
그대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풍성하고
어느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힘없이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삶의 직업으로 여기지 말고
순전히 주님에게 붙잡혀 사는 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삯꾼 목자가 되지 않게 조심합시다.

누구든지 외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잘 들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고 넓어야 할 것이고
생각은 신중하고 깊어야 합니다.
성품은 유쾌하며 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는 성도들을
따뜻한 맘으로 이해와 위로를 하고
잘못된 신앙은 엄격해야 합니다.

진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고린도후서 6:3)

뒷걸음

주님을 가장 잘 안다는 자부심
주님의 제자라는 복된 호칭
모든 것을 버렸다는 召命(소명)
분명 이 일에 대한 보상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의 이적을 보았으나
주님의 변모를 지켜보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으로 보니

두려움이 덮치고
신앙을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정말 그때는 부정하고 싶어
어디서 생긴 단호한 뒷걸음

그렇다, 그랬었다.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었다.
십자가의 주님의 시선을 피하며
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

그때 내게 떨어진 주님의 핏방울
아! 나의 죄, 나의 불신 때문이라.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점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미쳐가는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
예수 복음의 진리를 알려 하지 않고

갖은 죄를 다 짓고도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뻣뻣이 들고 활개를 치는
이 패역을 심판치 않을 수 있나

이 혼탁한 세상에 있으나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을
날마다 주님 오시길 간구하기를

이제 그날이 곧 온다.
결코 지체치 않고 오시리라
저기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믿음이 이기네, 내 믿음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뒤에서 많은 험담을 합니다.
그 말대로 행실이 옳지 않았으니
철없는 때,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아니, 정신 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행이 멋져 보여
항거 못 할 그 무언가에 잡혀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처절하게 부딪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싸움은 처절한 영적 전투이니

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내 속의 악한 영을 꾸짖고
당신의 권능으로 싸움을 끝냈으니
보시오.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이제 지난 세월 헛된 미련 없이
다시는 헛된 꿈에 유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니
영혼의 충만한 은혜로 살겠습니다.

보십시오. 단정치 못한 모습 없이
쓸모없는 겉 단장 없이
속사람으로 경건히 살겠습니다.
새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렵니다.

삶의 합당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비로소 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주신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위해 살려 하오니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죄악의 무게가 저 십자가에
죄악의 분량이 저 흘린 피의 분량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주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주만 따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누가복음 8:2)

免避(면피)

모진 고난과 박해가 없이도 잘 사는
어려움이 없이 잘 믿고 있는 현실에
어쩌면, 어려움을 잘도 피해 살려는
이 얄팍한 믿음을 축복으로 여기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면서
주변에 연약한 동료들의 외침에는
그건 그들의 일로 외면을 해 버리고
그들의 알아서 해결할 거라면서
이것도 내 축복이라고 흡족하다니

주여!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하니
어찌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리

주님의 골고다, 저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함께하기를 고대하오나
육신이 또 그것을 막아섭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것으로
내가 나의 원수가 되어 슬픕니다.

목회자 바울

많은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전도사역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모두 자원하여 함께할 줄 압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교회가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나 바울의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주의 은혜와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한 영혼 구원에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
예수에게 미쳐 사역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진심에 오해가 없기를

평생을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었고
아, 감히 말하건대
주님과 교회, 성도와 결혼하여서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내 달란트는 오직 복음 전도이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종으로 기억되기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복된 직분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종
포악하고 완악한 영혼을 구하는 일
모두가 자기의 일을 사모하고 사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대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회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과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니
교우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족쇄를 더 기뻐하는 이들

하나님은 그대들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씌울 것이니
더욱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합시다.

그러나 자기 교회만 아는 이들이여
자기 목회만 생각하는 이들이여
자기중심에 붙잡힌 소심한 이들이여
부디 연약한 교회와 동역자들을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니
그들을 살피고 이끌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약점을 나누어 짊어집시다.

주님이 그대의 진심을 살피십니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목회자들이여!
복음 전도에 많은 일꾼을 양육하여
그들로 여러 교회를 세우게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과 찬양을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스스로 삯꾼 목자가 되거나
자기의 영달과 축적에 힘쓰지 말며
주님이 쓰신다 하시면 순종하여
지금의 모든 것 내려놓고 따릅시다.
온 재산을 다 드려 복음을 전하러
누구도 가기 싫은 곳으로 갑시다.
진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청빈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집시다.
진정 이름, 빛 없이 이 목숨 다하여
주께 오직 충성으로 감사와 영광을

목회자의 본심

내 첫사랑, 고린도교회의 여러분
내 관심은 그대들을 돕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을 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으로
주 예수의 구원에 감사를 나누고자

혹, 목회자의 본심을 곡해하여
이상한 소문에 휩쓸려 멀리했다면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자기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의 평안과 좋은 소식을 듣고픈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자라가는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 영광, 영광을
이 한 가지가 목회자의 본심입니다.

목회자의 생활

사람은 누구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은 삶을 위한 일입니다.
목회의 직분도 생활과 연관됩니다.
이 직무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비용만큼
목회자의 가정도 쓰임이 같습니다.
목회자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하였고
이는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울 것이니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며
누가 하나님의 주머니가 될 것인지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와 교우들의 직업이 달라서
사회와 목회라는 사역은 다르지만
주를 섬기는 역할과 직분에 충성을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갑시다.

목회자의 수고

목회란? 世上事(세상사)를 놔두고
개인의 영달과 이득을 포기한 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과 교회에
아무런 보장과 대가가 없는 수고뿐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고 가는
진정 외롭고 험난한 소명의 길이니
주님만이 그 마음과 수고를 아시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첨이나 탐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맡겨 주신 복음을
한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여
예수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때론 엄하게 믿음으로 깨어나라고
주의 심판이 가까움으로 권면하나
사랑하는 속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여!
오늘 그대의 흔적이 멋진 이유는
평생을 이름, 빛도 없이 주 예수만!

무서운 것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세상에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게 노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치명타를 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교활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것은

제일 강하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도
제일 혹독하고 엄한 체벌을 하여도
당할 재간이 없는 그것은
혀, 혀, 혀

차라리 벙어리라면 가능할까?
천만에 그럴지라도 혀는 또 변신을
어쩜 좋을까? 누가 이 혀를 이기랴
주여, 날마다 내 혀를 다스려 주소서

믿음 1

물러서지 말라
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이미 본 것으로 앞을 알 수 있으니
물러서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뿐

보라 누가 홍해를 건넌다고 했던가
생각하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본 것들에 대한 확신인 것을

아벨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였고
에녹은 최초로 살아 올라갔으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알았으니
본 것은 오히려 믿지 못할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자
그 약속이 나의 믿음으로 되기를
보라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을
믿었기에 뜻을 이룬 저들을 배우자

믿음 2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길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상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닌
그렇다 하여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보지 않고 믿는다고
남들이 뭐라고 수군수군하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도 타락하였고
세상의 흐름을 보니
정녕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정녕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어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 3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간다니
아마도 믿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요구하나?

아닐 것이다.
믿음은 어쩌면 나의 본질을 알려는
하나님의 고단수일 것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보단
보이는 이 현실이 매우 매력적인데

믿음은 이 현실을 건너 있는 것을
정말 그것을 잡을 수 없고 못 보니
그래서 갑갑한 마음이 더 크나 보다.

주여! 믿음 적다고 탓하지 마시고
주이 말씀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인식을, 고집을 꺾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믿음 4

인생의 황혼 길에서 돌아보니
헛되고 헛된 일에 집착만 하였군
참 삶은 하나도 없으니

삶의 굴레에 갇혀 아등바등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올곧게 살아온 흔적은 하나도 없고

누구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겨
잠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고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랐는데…

세상이 감당을 못할 믿음을 못 갖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고 살다니
참 못났다, 정말 못났다.

비록 크게 주님을 못 높여 드렸으나
그래도 우리 주 예수를 굳게 믿으니
천성을 코앞에 두고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내게도 그 언약, 이루시리라

믿음 5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믿음은 오직 부르심을 따라가려는
믿음은 오직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믿음은 축복하고 견고케 하는 힘을
믿음은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믿음은 홍해라도 건너갈 용기를 준
믿음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이 삶의 터가 된다면
하나님을 굳게 따른 이 믿음이라면
이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저기 우리의 본향으로 나갑시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王道(왕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들은 교양인이요, 지식인임에도
최첨단의 과학과 유행을 아는데도
가장 고상하고 예의 있음에도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기에
성령의 비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들의 지혜가 스스로 막아 버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십자가를 통해 무식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합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이를 불러
지혜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려는 뜻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왕도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자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이 찔리신 그 상처 하나하나에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 방울마다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상처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어
염치없이 가슴을 치며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내 주님에게로

무엇을 드릴 것도 없고
무엇을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그저 눈물만 가득히
정녕 나를 위해 그리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나를 부러워하며 기다리는 천사들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힘을 내어서
저 천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자.

날 위해 참으신 주 예수만 바라보자.

바울의 간증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의 기묘한 계시를 받고 보니
감히 발설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받은 이 외에는 알 수 없는 일로서
그저 감사하고 증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체험 다음에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이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간구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은총이라며
그 고통으로 더욱 담대하라 합니다.
약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

그렇습니다.
겸손보다 큰 무기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비결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만 따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모든 민족을 예수로 하나가 되도록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어 더욱 경건하며
은사의 거룩한 역사가 넘치길

예수를 온전히 본받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사랑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여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요
더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아멘.

바울의 동역자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움직이는 종합 병원으로 아프기만
말솜씨가 없어 아둔해 보이는데
이런 못난이에게 벗들이 있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는가?

총각인 나에게 아가씨 뵈뵈가
아플 때마다 의사 누가와 함께
나의 치료자와 동역자였으니
이들의 사랑으로 3차 전도를 하여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살핀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찌 그 사랑을
천막 업을 하면서 生死(생사)를 나누었고
아볼로까지 가르쳤던 나의 친구여!
마지막까지 내 곁의 동역자입니다.

구레네 시몬, 주의 십자가 진 사람
그의 부인과 아들 루포에게 감사를
이들은 내 어머니요, 형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적은 이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들의 수고가 기억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길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던 이들이니
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장에 이름을 넣지 못하나
또 하나 빌립보교회와 루디아 자매
그녀의 집이 빌립보교회가 되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만 도왔으니 감사하고
어찌 그 이름들을 잊겠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에
나의 허물을 덮고 도운 이들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행전 16:3)

바울의 변론

사랑하는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여!
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나쁜 소문으로만 전해졌으니
오, 주여!
젊은 날의 나의 만용을 용서하소서

아마도 고린도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람들 관계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직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다 보니
이를 독불장군으로 여겼나 봅니다.

아! 나의 사역의 증거를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예수의 신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형제여, 자매여
진정으로 나의 진면목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렵니다.

바울의 사명

만삭도 못 되어 출생한 얼뜨기
극렬하게 예수를 반대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였는데
저들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없으나

다메섹, 나의 다메섹,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처럼 혼란스러웠던 적 없었고
자신의 지식조차 의심이 들었으며
그 회오리는 내 삶을 바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고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복음의 빚을 진 것처럼
부름 받았으니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예수 복음 전하며 살겠으니
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바울의 신앙

사는 동안 몇 번의 회호리가 있어
철없는 사람이 철이 들어 바뀌고
불의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경우가
그 일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큰 회오리는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부활이 없다면 어느 믿음도 헛되니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혈과 육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하며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나는 또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잠시 후에, 하늘에서 들려올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분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부활의 변모된 새 몸을 입고
모두 그 나라에 올라갑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도 맙시다.
주의 부활이 확실하여 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바울의 열망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밖의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들은
그럴듯하고 달콤한 설교를 듣고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영혼을 속이고
함께 다른 길로 빠지고 맙니다.

오! 나의 열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를 전하는 일이며
그대들의 믿음을 돕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왜 그대는 이 열심을 의심합니까?
나 바울은 감히 자랑하건데
숱한 매질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죽을 고비를 수차 겪었습니다.
내 진정 기도하고 열망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의 전도

살다 보면 여러 일로 얽힌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온다.
복음 전도가 미친 것이라 하니
저들은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가

세상이 혼란스럽다.
세월이 수상하다고 하지만
어느 하나 답을 주지 못하니
세상에 쏟아지는 잡지, 신문들은
잡다한 쓸모없는 내용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
복음 전도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 하지 않음이 옳은가?

내 사는 동안 내 일은 복음 전도요
내 본심을 말하라면 오직 예수니

날마다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며
주여!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진심

돌이켜보니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그 일만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오해받지 않으려고
구차한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교회가 도왔고
이 모든 일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나 바울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싸구려, 삯군 목자는 싫습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의 일꾼이며
자칭 사도로 위장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를 전하려
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질병

바울은 아주 심한 질병이 있으니

예수를 알기 전은
율법의 예언을 모른 무식 병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교만이요
전통에 안주한 영안이 닫힌 병을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다메섹의 빛으로 안질 병이요
복음 전하다 매를 여러 번 맞아
온몸이 깨지고 부러진 골병이요
전도하다 생긴 안짱다리 걸음 병
더구나 예수에게 미친 병
그에게 더 합당한 병명은
복음을 알리는 예수 전염병이라

세상의 병은 세상의 일로 얻으나
예수를 진정 따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전염병을 퍼트려야 하겠다.

주여! 나는 예수 병자니
날마다 예수의 피로 수혈하소서!

바울처럼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이가
자기의 義(의)에 확신에 찼던 그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변화되다니

바울의 안타깝고 애타는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진정,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날마다 질문하고 질문하며
날마다 회의하며, 의심을 하나

당신이 비추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과 패악이 드러나고
어리석음과 무식이 나타나니
결국 죄인이라고 고백하오니

바울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몸부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방황

십자가로 빗줄기가 세차게
처마를 타고
예배당 입구에는
한 노인이 비를 쫄딱
막연히 서 있다.

예배당의 십자가 탑마다
붉고 화려한 빛들이 켜졌다.
예배당 안은 컴컴하고
한 노인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다.

노인에게 누구냐고
노인에게 왜 왔느냐고 묻지 않고
무조건 내쫓는다.

노인은 힘없이
그 비를 맞으며 마냥 걸어간다.
노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그 지친 몸을 걸쳐 놓는다.
그 몸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린다.

베드로 1

군중들의 함성보다 더 큰 소리로
저 언덕에서 날 부르지만
애처로운 절규로 날 찾지만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없고

못났다, 못났다 자책하지만
그 언덕까지 가는 길 참 멀구나
한순간의 호기조차 우스워진
목숨까지 버리며 지키겠다더니
이게 뭔 꼴이람

허연 이 드러내고 달려온 파도는
날 추궁하던 그 소녀의 독한 눈길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맘 가난하여야 천국 간다더니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더니
이제 난 어디에도 쓸모없는가?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그곳에 가서 보기나 하자.

베드로 2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미쳐 버린 파도의 울음소리에
골고다의 절규를 진하게 전하고
바닷가 주인 없는 배는 날 닮았다.
아직 비린내 가시지 않은 배가에
며칠이고 悔恨(회환)에 휩싸여 있을 터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음성
십자가에서 요한을 먼저 찾으시니
내 수치가 이리 비참할 줄이야
파도도 책망하듯 미치게 불어온다.

가슴 속에 응어리를 풀어보고자
바닷가로 배를 띄워 보지만
역시 빈 배로 들어오는 실패만

주님이 죽으신 후 3일의 아침에
저기 마리아가 다급히 찾아오고
그래, 가자 부활의 주를 보러 가자.
마지막이라도 날 쓰일 때가 있다.

베드로 3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사실이 된 현재
고개 숙이고 그저 묵묵히

사랑을 물으신다.
아직 내게 사랑이 남았을까?
나는 사랑보다는 존경하는 것이

다시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시니
나는 벗으로 존중하겠노라고

또 물으신다. 사랑하느냐고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이미 받은 그 사랑만으로도

맘에 없는 답을 하진 못하겠고
네, 사랑합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
이 몸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받은 사랑을 갚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온전한 믿음을 갖고 늘 깨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으니
성결 된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
그날에 받을 은혜와 상급을 기뻐해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주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치룬 저 큰 사랑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잊지 맙시다.

들의 풀은 금시 시들어 가고
인생도 그렇게 시들고 말 것이니
義(의)의 자녀같이 옳은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됩시다.

진정,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 오실 때, 영화의 잔치에 들어갈
義(의)의 예복과 등불을 늘 준비합시다.

보좌 앞으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비밀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은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열려 있는 거룩한 문을 통해
성령의 감동받은 이들은 들어가
그곳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를 보라

장엄하다, 거룩한 존재의 형체로다.
오직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스랍들의 옹위와
24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

오, 성령이시여!
이 갑갑하고 메마른 영혼을 깨우쳐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의 기이한 일들을 보도록
저 거룩한 천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 일부 특정 사람들에게 인정을
어떤 세력과 지방 토족의 인정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단과 방법을
혹,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주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 전통과 관습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면
분명하게 그런 복음은 거짓입니다.

오직 그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아멘

복음의 일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울
복음의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대들입니다.
그대들은 예수의 피로 사왔으며
그 값은 갚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의 피로 일꾼들이 되었으니
오직 말씀을 따라 충성하여야 하며
은혜 중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의 터 위에 그대의 집을 짓고
예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품어
그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충성, 충성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에베소서 5:30)

부활의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회당에서는 이사야서를 읽고
민족의 해방을 주실 메시아가 오길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율법의 성
그 3일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기대를
아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그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는데

두려움으로 무덤을 봉인하고
혹시나 하여 병사로 지켰으나
그날을 막을 수 없는 無力(무력)뿐

저기 백기를 들고 서 있는 무리들
아하, 바알세불과 졸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에 묶어 끌려가니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열렸다.

붙어 있기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저 믿음으로
어쩌면 곁가지로 끼어들었는지
그렇다고 해도 이제 꼭 붙어 있기

하나님이 택한 이들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믿지 못하지만
어쩌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곁가지도 끼어들었으니 더 붙어야

풍랑과 시련이 흔들고 괴롭혀도
숱한 모략과 비방으로 의심케 해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꼭 붙어 있기

육신과 안목과 정욕의 뿌리를 뽑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가 되니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가 뿌리에
은혜의 영양분을 충분히 뿌려 주실
그러니 은혜에 감사하며 붙어 있기

항상 예수의 은혜로 붙어 있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5)

비누칠

날마다 비누로 얼굴을 씻는다.
매주 비누로 목욕한다.
비누로
세수하고
몸을 씻고
머리도 감아
때는 밀어낼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아무리 좋고 비싼 비누로도
씻어 낼 수 없으니

이 못난 사람아!
그대 영혼에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겨 내리자

주여!
늘 당신의 피로 물들게 하소서
당신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9)

빌라도

나는 팔랑귀를 가졌습니다.
나는 겁이 매우 많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두려운 결정은 싫습니다.
내가 책임지기보다는 넘기는
손을 물로 씻고 저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일들이
세상사를 아는 것 같았으나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결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진실을
나는 들었습니다. 군중의 허위를
나는 알았습니다. 불공평한 재판을
그럼에도
자신에게 책망을 수없이 하지만
이제, 이제는 도피할 곳조차 없는
역사의 그늘에 갇혀서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 영원한 무죄라고

빌라도의 아내

꿈의 세계로 깊숙이
천성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넓은 뜰을 화평한 얼굴들로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예수 그분이 계셨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어
저 아래의 컴컴한 계곡사이로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며
살려 달라는 부르짖음에
아! 아는 얼굴들도 있었고

또 한 곳, 어디론가 가기 위해
어두운 모습으로 서 있는 무리들
그곳에, 놀랍게도 내 남편 빌라도
안되오, 안 되오, 불러 보지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남편

기이한 꿈이었다.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없으니…

사랑 I

이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말, 사랑
아름다운 이 말도 참사랑 없이는
저 녹슨 대문 열리는 소리만 날 뿐

천상의 예언과 세상 지식을 지녀도
천하의 군마와 세도를 누린다 한들
순교의 정신으로 온몸을 태웠어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은 참으로 바보가 되는 것
잘난 체로는 알 수 없는 바보 놀음
해박한 지식과 예절로 계산 못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위의 것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랑이 값진 것을 아는 날이 오면
이미 그 사랑에 대한 미안한 일만
사랑할 수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참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
모든 것을 사라지고 잊혀 가지만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사랑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언제나 들어도 말해도 좋기만 한
주와 너를 사랑,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이 그대를 조용히 부른다면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비록 사랑의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아니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를 흔들어 모든 꿈을 앗아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을 합니다.
사랑이란 그 깊이만큼 강인하기에
어떤 고통이 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와도 견딥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 없고
사랑보다 약하고 아름다운 것 없어
사랑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합시다.

서글픈 밤

오늘 밤따라 새소리 없고
둥그런 달마저 사라져 버린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이건만
벌써 축축해진 풀잎

지친 몸, 바위에 기대어 놓고
정녕, 가혹한 길을 선택하는
피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결정할 수밖에
아!, 하나님, 이 길뿐입니까?
나의 아버지, 이 결정뿐입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건만
당신은 그 길을 선택하셨으니
나의 죄, 나의 죄, 오! 나의 죄
내 마음의 망치로 당신을 쳤고
내 눈의 창으로 당신을 찌르고
내 죄의 행동으로 주님을 그곳에

주여, 정녕 그 길을 가시려면
이 죄인도 함께 데려가 주시길…

성도들에게 1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소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좋은 일로 소식을 듣고 보냈으면
우리네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길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예수께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이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암, 그렇고말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책망할 것이 없길 바라고
믿음으로 주의 교훈을 굳건하게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붙잡아 주어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깁시다.
예수가 우리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2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여
어떤 이들을 십자가의 예수를
세상의 지혜와 이치로 이해 못하나
믿는 이들은 십자가의 뜻을 아니
저들에게 부끄러운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문벌, 학식에서 부족하지만
이는 그것으로 예수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압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모르는
저들의 방식으론 예수를 부인하니
오히려 부끄러운 십자가로 인하여
저들을 더 부끄럽게 하여 돌이켜
십자가의 예수로 나가게 하시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한 가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그 증거는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령 세례

얼마나 흘렀을까?
슬픔을 누를 수 없는 통곡으로
닥쳐올 고난을 생각할수록
아무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다.
오랜 시간의 침묵만 이어갈 뿐

말씀 묵상하고, 회상할 때
모인 자들 영혼을 격동시키는
아주 크고 놀라운 강력한 바람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

뜨거웠다.
세상 어떤 열보다 매우 뜨거운…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 속으로
혀가 풀리고
견딜 수 없는 황홀한 능력 충만을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신 그날
성령을 받자,
크고도 강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 오늘 불 성령을 받자
오!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열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財利(재리)에 밝고 욕심이 큽니다.
타인에게 지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으니
그 모두 가진들 무슨 소용 있나

저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바보입니다.
세상에 저런 弱者(약자)가 없을 만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날마다 왜 그리 눈물이 많은지
눈물을 달고 사는 울보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바라는

세리의 기도

주님, 차마 입 열기조차, 민망하나
쳇바퀴 돌듯 날마다 분주하여
조용한 새벽에 무릎을 꿇지 못해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도 지나친
마음에 당신을 향한 사랑은 있고
현실에 몸은 피곤하여 지쳤으니

겉모양이라도 열심을 내고 싶고
부족한 시간 중에라도 기도하길
각박한 살림 중에서도 헌금으로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금식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지 못했습니다.
헌금다운 헌금을 못 했습니다.
차마 당신 곁에 나가는 것조차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허나, 큰 죄인을 오라고 부르시면
그때는 제일 먼저 달려가겠으니
당신의 넓은 품에 받아주소서!

세월

참 빠르다. 뭘 했는지 시간만…
악한 시기를 잘도 타협하며 살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옳다고 믿으면서
나만 정직하고 옳다고 착각했으니
이 죄, 무엇으로 다 씻을까?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살이에 너무나 바쁘니
뒤를 돌아다보니 열매가 없구나
내 딴에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온통 부끄러움과 헛수고뿐이니
어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는가?

주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내 입술을 불로 지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찬양과 감사를
세상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내 속사람을 강건토록 도우사
성령의 은혜로 가르쳐 주소서.

악한 세월에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6)

스데반

그의 순교는 매우 숭고하였다.
웅장하고 높은 기개와 위엄을
저 확고한 믿음을 깊이 생각하자

말씀의 깊은 뿌리로
성령에 충만한 저 견고한 확신
눈을 들어 천성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건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지 않고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저 큰 믿음

말씀으로 스데반과 나누는 대화
그에 비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부끄러워 말씀을 덮으니
그저 눈물만 흘러내린다.

나에게도 저 견고한 믿음을 갖길
성령의 은총에 충만하길 간구한다.

시련 중에

주님,
아직은 감당하고 기뻐할 만한 믿음은
삶에 매인 이 질긴 끈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부딪치기보다는 도망하려 하오니
싸워 보기보다는 포기하려 하오니
원컨대 이들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도록

오! 주여,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하나님의 깊은 침묵 앞에서
우둔한 나로서는 알 수 없으니
부디, 한 말씀만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그 피 흘리신 손으로
내 손을 살며시 잡아만 주시면
한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파도는 열심히 자기 살을 깎고
바다의 물결이 되고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새는 자기의 일에 부지런하게
오직 숲속의 한 존재가 되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먼지
꾸물꾸물 기어가는
굼벵이는 가야 할 길을 갈 뿐

아름다운 장미는 자기를 지키려
가지마다 가시로
찔리는 손길마다 피가 흥건하게

가야만 한다면
기어야 한다면
지켜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기, 두려워하지 말기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 따라, 골고다에 올라가기

십자가의 길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가시는
제자의 배신으로 가시는 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인류의 질병을 짊어지신 어깨
제자들의 버림으로 외로운 길목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이 너무 아프고 높은 언덕

당신에게는 죽음의 길이시만
나에게는 영생의 길이 되니
당신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
당신은 죽으심으로 다시 사시는

십자가의 길은 참혹하나
죽음의 세력은 무너지고 마는
죄악의 값을 셈하는 큰 희생

십자가에 당신을 내놓으시기에
그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얼굴

여러 색조로 물들어진 배우의 얼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한 얼굴
저 화장이 지워지면, 차마

세상의 얼굴은 미안하지만 사라질
그래도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면
장차 받을 영광의 얼굴은 어떠할까

기억하시라
돌에 맞아 피가 흐르고
눈물과 꿇어 오르는 간곡한 목소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스데반의 얼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모세의 빛난 얼굴을 덮은 가면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는 사라지는

우리가 사모하고 덧입을 얼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왔던
들은 이야기로만 믿으려 하였던
虛名(허명)만 두르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물은 넘치면 흘러내리고
온누리에 골고루 나누니

깊은 물이 되고자 하려면
더 아파야 하고
더 외로워하여야

아! 아직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그래서 이 새벽이 아직 어둡다.

영적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들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어야 합니다.

세속의 달콤하고 화려함보다는
세속의 고단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항상 같이하여
불꽃 눈동자로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갑시다.

세상의 미숙한 주도에 끌려서
천성 가는 길을 돌아가거나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따릅시다.

내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늘 성령의 든든한 보호를 따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육신에 지지 말고 자신을 쳐서
새롭고 놀라운 주의 뜻을 따릅시다.

영혼의 닻

긴 시간, 뭍을 떠나 바다를 돌다가
모처럼 사람 사는 곳에 도착하면
다시 떠나기 싫어 닻을 굳게 박는다.

거기서 눌러앉아 쉼으로 누리고 싶어
긴 여행길에 지친 몸 하나 가눌 그곳

인생의 긴 여행을 떠돌아다니다가
날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 주고
내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실 나의 주 예수

옛적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
약속한 복락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닻을
말씀 안에 깊게, 깊게 붙들어 매리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복락을 누릴 소망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
그 말씀을 따라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반드시 주실 은혜와 복락을 믿노라

어느 길을 행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내 닻을 내리자

예배당 1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머리 숙이고, 눈을 감아 보지만

자꾸 생각나는 것은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온 것 같은

마음 갈피 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들려오는 설교자의 발음은
자꾸만
근심하라, 걱정하라고 들려온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 무척 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24)

예배당 2

내 영혼에는
뜨거움이 없으면서

성도들의 영혼만
매우 뜨겁기를

불붙지 않은
내 영혼에
매캐한 연기만
모락모락

오늘따라
예배당은 매우 매웠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26)

예수여!

힘겨운 세상살이에서 홀로 서 있기란
부딪치는 인종마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같은 부류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람들에게 하소연해 봐야 늘 같은 말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 없는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자기 생각만 옳고
이제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까?

이 깊은 시름과 괴로움을 하소연할 곳
삶의 깊은 무게를 함께 짊어지신 그분
쩨쩨하고 얄팍한 종족들의 생각을 알고
저들의 율법과 외식을 단번에 깨트린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나의 주 예수

보라!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 예수를
그의 손은 약한 자들에게 펼치어 있고
그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씻겨 주며
그의 마음은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라

오직 예수만 나의 삶을 잘 아시는 분
나의 이 괴롬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I

예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의 창조부터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

천지를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신 분
인생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사신
인생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신 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 본성의 職印(직인)이 되신 분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인생의 죽음을 홀로 받으셨으나
이젠 하나님의 보좌에서 좌정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 아니 우리 모두여!
눈을 들어 보좌에서 살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재림하실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2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저 크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이름으로 일구신 구원의 은혜

아무리 영험하고 거룩한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손에 창조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
스스로를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니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그대입니다.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쓰신 분
천사들의 입술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영원한 선포와 증거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보좌에서 구원의 홀을 들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듣고 믿으면
그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쟁이

그대에게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그대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무엇이고
그대는 그 별명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대는 스스로 예수쟁이라 한다면
그대에게 예수가 과연 계십니까?
그대는 그 예수를 나타내고 있나요?

무엇으로 내 안의 예수를 보여 줄까?
사랑도, 자비도, 긍휼히 여김도 없이
더구나 예수 믿는다는 고난도 없이

이제라도 마음에 우러나는 친절과 온유로
옳지 않는 복음은 단호히 배격하여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받아드리도록
내가 먼저 예수쟁이가 되길 원하니
진실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정, 예수쟁이로 살 수 있도록…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26)

요나의 고백

이리 엉키고
저리 설키고
서러움과 원망이 겹칩니다.

어디선가, 불쑥 삐져나온
종기 하나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탓입니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내 탓입니다.
말씀을 열어 읽어 보아도

내 탓입니다.
한없이 눈물의 기도를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하나
내 탓입니다.

이 세대

휘황찬란한 소돔의 거리에서
늘 색다른 넥타이를 골라 매고
소돔 골목 사이로 숨어 사는
소돔이 그를 숨겨 둔 것인지
그가 소돔을 숨긴 것인지

소돔을 빠져나와
돌아보면
아침에 매고 나온 넥타이가
길게 뒤를 따라오고 있다.

소돔이 그 넥타이로
나를 묶고 있는

또 넥타이를 골라 매면서
꽉 막힌 목 안에는
소돔인의 비애만 가득하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2)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목회를 희망하는 이들은
저곳 예루살렘을 꿈꿀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름, 빛 없이 섬긴다고 다짐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곳
누구의 복음도 듣지 못한 곳에는
선뜻 나서는 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가리다.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날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훗날 예루살렘에 내 자리가 없어도

나는 예수를 알리는 나팔이 되어
나는 예수의 씨앗이 되어
바람 따라 널리 퍼지고 들리도록
예수의 말씀을 들고 나가련다.

비웃지 마라, 위로하지 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련다.
나는 나의 주 예수만 전하련다.

자랑

바울에 관한 고린도교회의 소문에
앞에서는 자기주장을 못 하면서
편지에는 갖가지 요구를 한다면서
무원칙주의자니, 기회주의자라 하나
그런 소문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복음은 장사치처럼 시세 차익이나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냉혹하고 더러워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진 않겠으며
오직 능력의 말씀의 검으로 나아가
내 믿음이 옳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진리를 막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고쳐
주님의 공동체로 옳게 하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 갑시다.
매사에 우리 주 예수만 자랑합시다.

장미

잔혹한 4월은
조금도 비켜날 줄 모르는데
한 떨기 장미는
온밤을 지켰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흘린 피의 자리에
피어날 분신이라도 되듯
애끊는 가슴 쥐어뜯으며

이 밤에
점점 붉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정녕 당신은?

당신이 퍼트린 꽃씨마다
피어오르는 열매를 못 보십니까?
당신이 뿌린 씨마다
저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정녕 당신은 그 모두를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떨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속에 자라지만
진정 당신은 나를 떠나신다니
내 영혼이 너무, 너무 아픕니다.

그리하지 마시기를
정녕 그리하지 마시기를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뜨거운 영혼이 또 아픕니다.

그것은 정녕 당신의 일이시기에
막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아픔
정녕 그리하셔야 하신다면

당신이 뿌리신 꽃씨들을
오늘도 묵묵히 뿌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당신이 내미신 손은 흉측하고
당신이 보이신 허리의 큰 상처
여전히 피비린내 진동하여
차마 바로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니
거기 천군 천사들이 둘러 모여
당신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나니

당신이 떠나신 자리에는
여전히
당신이 흘리신 핏자국들로

주님, 당신의 걸음을 따라
저의 피 한 방울쯤 흘리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17)

주님을…

먼 순례 전도 길 멀기도 멀어
고물에서 고이 주무시는 주님
더 주무시길
많이 주무셔야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어

주님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곤이

요란스럽게 펄럭이는 깃대를
요동치는 선체를 꽉 붙잡고
주님이 깊이 잠드시도록
조용히, 조용히 노를 젓자

모든 일이 지금만 같아도
모든 일이 이렇게 평안하다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주무실 수도 없어
무심한 파도는 주님을 깨우니
아니 믿음이 없는 우리가
파도 앞에서
주님을 깨우게 하였으니
주님을 잠시도 주무시게 못 하는

주님은 깨워야만 하는 이 연약한
주님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의 위기만 부르짖어야 하는
진정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기만 한다고 투정을
어찌, 이리도 믿음이 없는가?
어찌, 이리도 인내가 없는가?

정녕, 주님은 주무실 수 없는
정녕, 주님은 잠시 쉴 수 없으신
이 못난 인생의 주님이시라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여야 하는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
주무시는 주님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38)

주의 은혜로

주여!,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슬픔과 아픔을 미리 아시고
내 안일함과 게으름을 이해하사
말씀으로 꼴을 먹이십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르기를 간구하나
어느덧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나
글쎄, 사는 일로 근심 걱정하는
그래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으로 보담아 주십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한 것은 없고
주여! 주 앞에 자랑할 것 없으나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직분자들에게 1

누굴 막론하고 어떤 직책을 맡든지
책임과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분을 맡으면
이런 일은 축복할 일이요 자랑이며
가문의 영광이요, 출세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천사도 받기를 흠모할 일이니
예수의 보혈로 세상의 권세를 이긴
예수의 권위로 받은 직분입니다.

세상의 기호품을 즐겨하지 마시고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지 악의 원인입니다.
이는 영광의 직분에 합당치 않으며
세상에게 웃음거리를 줄 뿐입니다.

주가 주신 직분에 충성과 감사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섬기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에게 2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십시다.
가르치는 직분은 중요합니다.
거짓 교훈, 예화와 세상 철학으로
복음의 본질을 가리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예수의 고난, 부활을 즐겨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십시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복음의 권위는 성령의 충만이요,
말씀의 깊이에 있습니다.
또 하나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삶!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 합당치 않는 삶은 슬픕니다.
이것에 옳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거짓이 되니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진실한 성도라고 인정받읍시다.
한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합시다.

청년 유두고

3층 창가에 걸터앉은 유두고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인가?
그럴 바엔 왜 참석은 했을까?
언변이 어눌한 바울 때문일까?
창가에 걸쳐 앉았기 때문일까?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 확실하지 못하여
밀려오는 졸음에 떨어져 죽으니

이 새벽에 나의 자리는 어딘가?
이 하루에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말씀을 안 듣고, 눈길은 딴 곳에
그러다가, 그러다가 떨어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살렸으니
그래, 진정 사는 길은 이것이다.

총독 벨릭스

로마 총독으로 지식인이여!
부활과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자여!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여!
들어 알되 믿음이 없는 자여!

세상 지식인의 답답함이요
그리스도 신앙을 교양이나 종교로
지식이나 도덕으로 아는 헛생각
신사적이고 교양인으로 보이나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인물이라

뇌물을 받기 위해 바울을 가두나
바울을 영원히 가둘 수 없는 권력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으니
그의 양심은 火印(화인)으로 찍혔고
실은 하나도 아는 것이 없구나.

오! 두려워하라.
그대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를
정녕, 세상의 끝에 심판의 날을…

편견에 대하여

나보다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면
나처럼 먹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타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
타인과 성격이나 습성이 맞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일인데
내 좁은 편견이 상대를 비방하여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면
곧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요

모든 기준과 해답이 자기에게만
과연, 내가 타인을 전부 다 아는가?
내 기준으로 아는 것은 위험한 일
내 기준은 사실 가장 틀린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사시는
참 경건은 나를 부인하고 낮추어서
오직 예수의 품성으로 사는 것이라

편지

책상에 낡은 편지가 펼쳐진 채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필시 온 맘을 다하여 쓴 것이라
그 편지 속에 숨어 있는 얼굴
아마도 그리움을 담고 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온 편지
그의 편지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닌
예수의 참삶을 그대로 보이신
그 편지를 지금 내 영혼에 품고
진실한 신앙으로 이 편지를 전하나

어찌 다른 편지를 달라고 하는지
세상의 달콤한 편지는 많지만
진정 우리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써 놓은 것뿐이요
누구든지 이 편지를 믿고 읽으면
영생,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는 없고 이 편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태중에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출생하여 내 이름을 짓기도 전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불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

반복되는 짐승들의 피 흘림보다
의미 없는 허위 祭儀(제의)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죄 값으로 내어주신 은혜로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이룬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여
날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구나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실 터이니
날 미리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을
내 입술로 부르짖어 뵙길 청하겠다.

하나님의 소원

믿는 자여! 그대들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은 주목하여 깊이 들으시니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 믿으시오.
하나님은 그대들의 간구한 소원을
하나님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더하실 터.

서로 뜻과 깊은 사정을 나누시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십시오
그가 더 잘되도록 힘껏 도웁시다.
주님이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자리를 친히 버리시고
우리의 질고와 약함을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사
우리도 같은 소원을 갖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의 주권 1

아! 내 소원은 오직 하나.
내 민족, 내 이웃, 내 가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이 되길
혹시, 나를 버리고 저들을 얻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들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 기도할 뿐
구원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어쩌면 좋습니까?
내 벗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기꺼이 죗값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를 살리려
보좌에서 오늘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2

예쁜 옷을 입으면 이뻐 보입니다.
못난 곳을 성형하면 좋아 보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멋져 보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광산의 금맥을 파도
숱한 재물과 시간을 투자했어도
광맥이 보이지 않으면 헛수고이나
그냥 걷다가 발에 걸린 돌 주변에
광맥을 발견할 수 있다면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맥은 저 깊은 곳에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죄에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3

안타까운 일은 잘 믿어 보겠다고
까다로운 조문들에 얽매인 이들
그래 얻은 결론은 무엇이던가?
오히려 죄의 구속에 끌려다니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덕을 쌓고, 자기 공로로 구원을
자기의 義行(의행)을 자랑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자기의 부족을 통회하며, 겸손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읍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합당한 복음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알려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향유를 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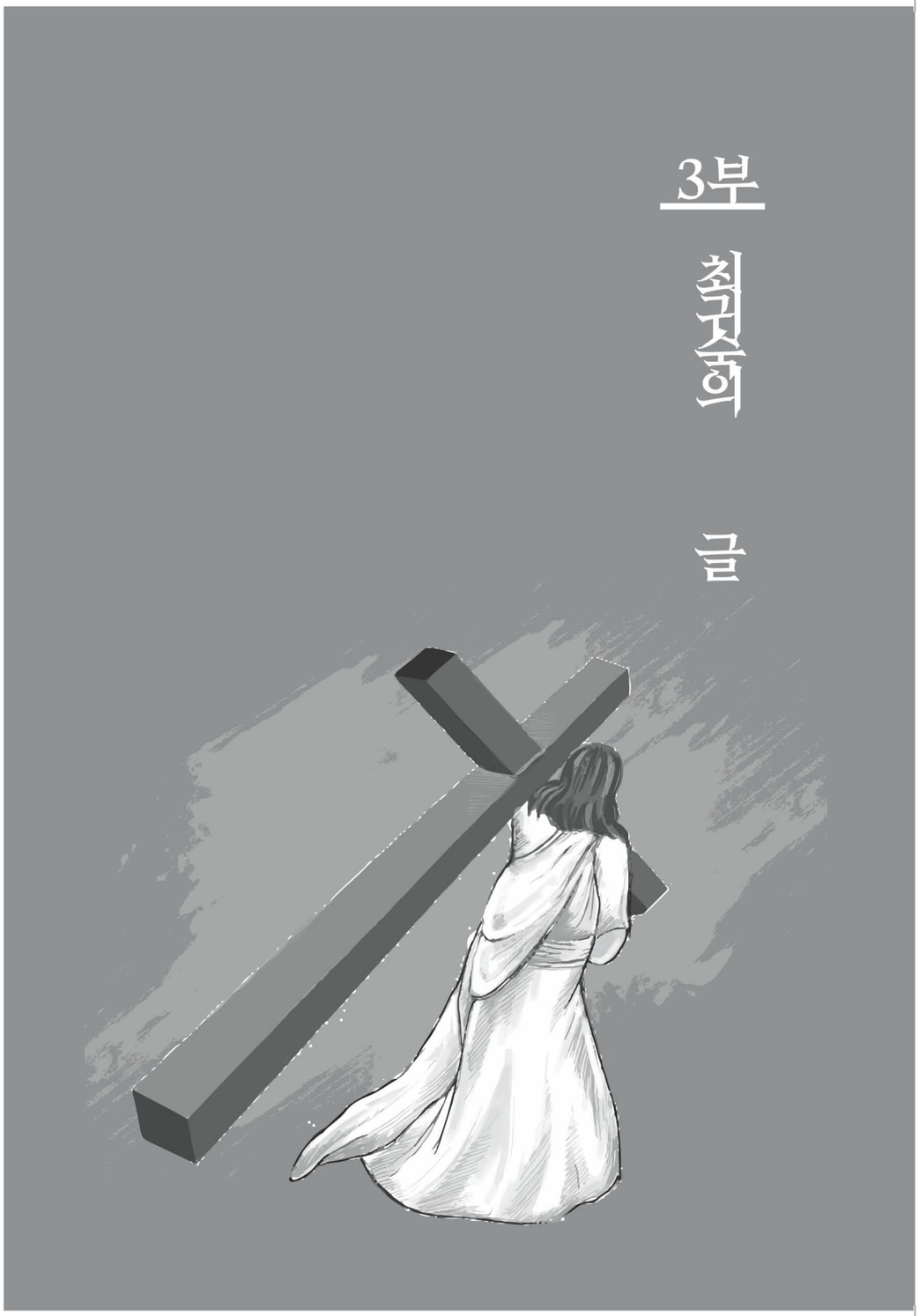
당신의 발걸음은 아름다웠기에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네 삶의 애환이 묻어 있어
이제 당신이 가시는 길에
우리네 죄악만 담겨 있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값으로 셈할 수 없는
우리네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면
아무리,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이제 당신의 죽음을 향기롭도록

내 삶을 바꾸신 그리스도이시여!
당신이 걸으실 저 언덕에
당신이 흘리실 피의 비린 냄새를
이 향유 냄새로 덮어질 수 있다면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
당신의 죽으심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네 모든 것을 당신의 발에
기껏 향유로 부을 수밖에 없나니
부디, 우리네의 작은 사랑 기억을
여기, 죄인이었던 이를 기억하소서

3부 최귀숙의 글



간증 -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4).

제주도 신혼 생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은혜의 손길로 예비하셨다. 혼기가 조금 늦었으나 중매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인 그를 만났는데 동갑내기이어서인지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느꼈고, 잘 통했다. 두 달 후, 겨우 6번째 얼굴을 보는 날 결혼하고 남편이 섬기는 제주도 난산교회에서 만 13년(1986년 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이라는 긴 신혼여행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고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앞으로 생활비는 지원받는 선교비 매월 5만 원이라는 말에 매우 큰 근심이 들었고 게다가 교회의 강단을 개조하여 급히 만든 3평짜리 컴컴한 신혼 방 1칸을 보면서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난산교회에서 맞이하는 첫 주일, 과연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잔뜩 기대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여자 4학년 7명(현재 50세, 여전히 교제하는 내가 아끼는 딸들), 남자 중고생 3명이 나와서 함께 첫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도와주어서 한때는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제법 많았고, 그중 2명이 목사가 되었다. 또한 난산초등학교 교사 부부, 난산보건진료소장 등 장년들도 있었다. 남편은 초교파로 제주 동부지역 목회자연합회를 결성하고 임원으로 뛰어다녔고, 나도 동목연 목회자의 아내들과 매월 정규적으로 제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어려운 목회 중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 난산교회에 매달 보낸다는 선교비를 두 달만 지원하고 끊어 버린 일이다. 매우 큰 실망이 되고 생활은 난감하고 막막하였다.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여러 번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명분이 없다는 답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 원로목회자가 제주도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 목회자들과 와서 남편에게 자신들의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과 맞지 않으니 이사비로 10만 원을 받고 떠나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남편이 그들 중 한 명에게 폭행당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폭언, 폭력을 하고도 저들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이라고 굳게 믿는 일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들은 우물 안 개구리 같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대단히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택의 필요가 커지자 남편은 무조건 사택 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1층은 벽돌 건물, 2층은 조립식으로 각 층 10평짜리 건물을 완성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택이 난산리에서는 최초의 2층이었다. 남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일이었다. 남편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늘 밤이면 강단에 자리를 펴고 눈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 나도 남편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전혀 모른 이들을 엘리야의 까마귀로 보내서 응답하셨다.

마당도 처음에는 잔돌이나 석분을 깔았으나 비만 오면 다 휩쓸려 가는 것을 여러 차례를 보다 못해 마당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었다. 남편은 그렇게 이리저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항상 먼저 저질러 놓고는 만 13년 내내 강단에 자리를 펴고 밤샘 기도하면서 지냈다. 그런 불모지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가 충만한 곳,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아낌없이 헌신한 곳, 그곳이 바로 난산교회였다.

그렇지만 제주도 중산간 매우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로서는 미자립을 벗어날 특별한 대안은 없다. 마침 난산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받은 간호사가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간호사로 보건 공무원이 되면 가정생활과 마을 전도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보건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우선 20년 만에 하는 공부라 준비 과정으로 일 년을 입시 학원에 다녔다. 그리고 늦은 41세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과에 입학하였고, 재학 내내 우수장학금을 받아서 고민하던 학비 부담을 덜도록 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은 참 멋지셨다.

드디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제주도 보건진료소 취업 후보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보건진료소를 줄인다고 한다. 그간 소망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던 취업과 미자립을 벗어날 대안이 사라지자 남편이 기도 중에 충남 온양에 개척한다며 이사를 결정하였다. 온양의 개척도 하나님이 그곳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햇수로 15년 만에 떠나던 날,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교회 안 나와서 감쑤꽈?(가십니까)' 하고 아쉬워하면서 이사 비용에 쓰라며 십시일반으로 전별금들을 주었는데 모두 200만 원이나 되는 꽤 큰 금액이었다.

엄마 생각

막상 제주도를 떠나 낯선 충남 온양으로 왔지만, 여전히 미자립 목회라 살림은 힘들고, 매우 외로웠다. 늘 그리워하던 친정인 충주가 두 시간 정도로 가까워서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으나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켰다. 엄마에게 '결혼하면 제주도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엄마는 나를 다시 못 볼 것처럼,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시면서 '가지 말라, 다시는 시집가라고 안 하마' 하고 붙잡으셨는데, 그런 엄마 생각에 그간 참고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니 더 참지 못하고 누르고 또 누르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지금의 궁핍한

삶을 벗어나려고 천안시로 이사를 하였다.

천안시에서 50세에 정신병원 간호사로 취업하면서 봉명동에 맹지인 줄 모르고 50평에 집이 두 채인 장소를 융자로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몇 년 후, 그 근처에 전철 봉명역이 생긴다고 집 가격이 급상승할 때, 그 집과 땅을 꼭 사고 싶다는 구매자가 있어서 팔았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믿고, 그 기회에 융자를 갚고 노후 대책으로 성정동에 낡은 18평 아파트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지' 생각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나는 직장에서 모략에 빠져 병원 운영자와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으로, 해결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었다. 아들은 난산리 고향을 떠나 육지 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방황하는 사춘기이고, 남편은 하필 낙상사고로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사방에서 이리저리 나를 괴롭게 하는 일만 발생하였다. 더구나 남편이 수술 후에 더는 도시 목회를 못 하겠다고 할 때, 양구 군인교회에서 민간인 목회자를 원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였다. 남편은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구, 군선교에 오가는 비용과 생활비가 속히 필요하다고 나와는 일체 의논 없이 성정동 아파트를 헐값에 덜컥 팔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군인 복음 전도에 쓰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저질렀으니 이 또한 주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믿었다.

16년 만의 기도 응답

얼마 후, 충남 조치원 일반 J병원에 초짜 간호과장으로 취업하면서 이사하는데 성정동 아파트를 팔았기에 월세 집을 얻으면서 무척 속상했다. 그곳이 세종시로 편입 예정이기에 집을 구할 적기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초짜 간호과장으로 J병원은 직장 생활 중, 가장 최악이었다. 병원장이 목회자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간호과장이 술을 못 한다고 갖은 구박과 모욕을 주어서 너무 힘들어 그곳을 그만두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막상 직장을 그만두면 군 선교와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다그치고 몰아세운다. 나는 남편의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판과 책망을 들으니 미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것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오직 교회!', 그것뿐이다. 목사로서는 괜찮은지 몰라도 가장으로는 참 못났고 무능하며, 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이 참으로 뻔뻔하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남편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며 월급을 타는지 알고 있을까?

자신이 실향민(함경남도 북청) 가정에서 자기 집 한 칸 없이 매우 가난하게 자랐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저런 남편과 살아가야 하는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싶어졌다. 하지만 나의 삶에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찾아왔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J병원을 벗어나기 위해 이사까지 하면서 옮긴 곳이 충북 괴산서부병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은 J병원 고난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새 일터를 애타게 찾던 나를 이름만 듣던 괴산으로 인도하시더니 마침 괴산군 보건 공무원 채용 공지가 있어서 지원하여 젊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56세인 내가 채용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내 나이 40세부터 기도하던 꿈이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세평보건진료소 소장'이 되었다.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정년 퇴임 선물

나는 보건 공무원을 딱 4년 하고 60세에 정년 퇴임했다. 짧은 기간의

근무로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엄연히 전직 공무원이다. 남들은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공부로 꿈을 이루고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의 목회를 도울 수 있었다. 또 하나 기쁜 것은 은퇴 선물로 한국교통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청주 행복한 요양원 간호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렇게 청주로 직장을 옮기고 이사하면서 그간 아파했던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구매하였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남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요즘 마지막으로 개척하자고 졸라대니 금방이라도 일을 칠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동안 부지런하고 행동이 재빠른 남편은 내가 늘 행동이 충청도 사람답게 느리다고 구박했는데 이제는 남은 삶을 늘어 터진 충청도에 살아야 하니, 이제 어쩌나?

남편도 열정으로 섬기던 양구 군인교회를 떠나,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 군인교회에 민간인 협동 목사로 섬기다가 2015년(만 60세)에 은퇴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남시에서 알콜 중독자, 조현병 환자들이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선교한다고 떨어져 살았다. 그렇게 양구와 하남시에서 총 10년을 따로 살다가, 자랑스러운 고급 백수가 된 남편을 데리고 살도록 선물(?)로 주셨다. 10년 만에 같이 사니 잔소리만 늘고 마치 철부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 같다. '제발 철 좀 들라'고 하면 남편은 '지금 철이 들어서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징조'라고 겁을 준다. 이럴 때 한 대라도 패 주면 마음이라도 조금 풀릴 것 같은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마치면서

남편과 37년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기막힌 일들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일하려는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기회와 여건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남편의 목회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미자립 교회, 자비량 군 선교로 무보수의 목회자의 아내였기에 참 힘들었다. 평생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1원이라도 좋으니 받아 보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다.

미우라 아야코는 '목사 부인이란 얼마나 고달픈 자리인가? 목사 부인된 사람들은 대단히 관대하고 애정이 깊은 분들이라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살며 생각하며》, 범우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저혈압의 허약한 몸으로 일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퇴근하면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들었고, 남편을 대신하여 각박한 생활을 책임지다 보니 남편의 군 선교와 병원 선교 현장에 같이 합력하지 못해서 매우 부끄러웠다. 이제는 남편이 목회를 내려놓았으니, 나도 목회자의 아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다.

여성으로 간호사는 특별히 은퇴 정년이 없기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10년 후에는 내 나이 80세 가까이 되지만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길 기도한다. 지금도 황혼의 나이이지만 가정의 경제 책임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을 부딪칠 때마다 말씀 암송과 기도가 나의 무기이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려운 제주도 목회 중에 4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보건진료소장 꿈을 갖고 간호학을 공부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서 준비할 능력도 주셨기에 가능하였다. 할렐루야!

이후, 나에게 남은 기도 제목은, 군 제대 후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는 아들이 하루빨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큰 손해를 보았고 이제 회복해 보려고 동분서주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가 한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으로 믿기에 늘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나의 기쁨

지금 부엌에서는 구수한 고구마 굽는 냄새가 난다.

며칠 전 가스오븐레인지를 들여놨다. 어려운 때에 거금을 들여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 할인해서 팔기에 주위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주문하고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물품이 도착하자 아들이 나보다 더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은 던져 버리고 춤추며 달려들어 이리저리 살폈다. 돌려도 보고 눌러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갖고 싶던 오븐레인지가 오던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품 설명서를 읽고 또 읽으며 공부했다. 밤늦게까지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만들어 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장 담그기며 고추장 담기까지 익힐 정도였다. 결혼 후 우리 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자주 주위의 외로운 분들을 초대하였으며, 나 또한 손님 접대를 은근히 즐겼다. 그래서 한가한 날이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곤 했다.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서로의 식성과 취향을 알아가면서 친근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하며, 아끼는 마음도 자라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나 행복하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몸이 피곤하다가도 신나게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뿐해진다. 맛있게 먹어 줄 사람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끓이고 지지고 굽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론 유별난지 모르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만일 내가 이 일이 즐겁지 않다면 남편이나 나나 얼마나 괴로우랴. 그런 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손님이 반가운 걸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 천성이 아닐까 싶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간호대학에 가려고 입시 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몸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기에 나가보니 손님이 네 분이나 오셨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몸을 추스르고 식사 준비를 했다. 돌아가려고 나오시다가 식탁을 대한 분들의 놀란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려고 온 줄을 아는데 웬 진수성찬이냐? 하시며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아파서 조퇴한 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기분이 한결 나았다.

이렇게 음식 장만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나 스스로 즐기다 보니 초대받아 가거나 외식할 때도 자연히 조리 과정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집에 와서도 흉내를 내 보고 분석도 해보곤 했다. 결혼한 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정 요리는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는 점차 새로운 것을 요구했고, 나도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조리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아이가 원하는 음식은 요즈음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대중화 때문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 덕분인지 가끔은 특별 주문을 한다.

유난히도 음식의 맛과 색깔에까지 관심이 많은 것은 나를 닮아서일 것이리라.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담아라 저렇게 담아라 하고 참견을 잘하여, 때론 화가 난다. 아이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밥상을 다 차려 놓았을 때, "엄마, 나 냉면 먹고 싶어." 하면 두말없이 만들어 주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내 힘닿는 대로, 아이의 필요에 따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 줄 때 난 나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기쁨을 선물로 받는다. 어른인 나도 가끔은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저럴까하여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마음에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엄마의 큰 행복이 아닐까?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저 아이가 결혼하면 마누라가 꽤 피곤하겠다. 저렇게 요구 사항이 많으니."

하루는 롤케이크를 만들었다. 구수한 빵 굽는 냄새가 온 집 안을 채웠고 내 마음도 빵처럼 잔뜩 부풀었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면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꼼꼼히 살피며 순서대로 만들었다. 구워지는

30분 동안 가슴이 뛰었다. 다 구워진 케이크에 딸기잼을 펴서 둥글게 말아 완성했다.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번에 절반을 먹어치웠다. 내 마음도 덩달아 흐뭇했다. 빵집 앞을 지날 때 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우리 집에서 난다는 사실에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찾아드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곁들여 멋진 즉석 파티를 열 수도 있지 않은가. 마주 앉아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이 붕 뜬 것 같다. 이젠 또 무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카스텔라를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손님이 오셔서 위층, 아래층으로 심부름하다 보니 깜빡 잊고 설탕을 넣지 않아 단맛이 전혀 없는 싱거운 빵이 되었다. 뻣뻣하고 향기와 맛이 없어 그대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만한 일쯤이야 다반사지 하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보기로 했다. 구수한 냄새의 어릴 적, 엄마가 아궁이에서 구워 주던 시커멓게 그을린 감자를 먹던 때가 그립다. 그새 감자가 다 구워져서 훌륭한 간식이 만들어졌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생일 케이크를 굽고 멋진 장식도 부지런히 배워서 아이들 생일에는 내 손으로 생일상을 차려 줘야겠다. 축하할 일이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맛있는 빵을 구워 내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내 솜씨로 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짜릿함이 있어서 좋다. 할 일이 하나 늘었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긴장되어서 좋고, 그것이 즐거운 일일진대 내 발걸음도 가벼워져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피곤도 잊히리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잠언 15:15)

모과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물에 씻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다른 과일과 비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맛이나 육질, 빛깔로도 여타 과일과 비길 수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당하게 과일 가게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진실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모과는 장미과 낙엽 교목으로 과수 또는 관상수로 심는다. 5월에 꽃이 피고 9월이면 누렇게 익는다. 키는 10m쯤 되고 가지는 자갈색의 윤기가 있으며, 잎은 어긋난 타원상 난형으로 윗가장자리에 가는 톱니가 있어, 마치 장미 잎과 비슷하다.

수년 전 이웃에서 모과나무 묘목을 얻어 우리 집 뜰에다 옮겨 심었다. 해마다 봄이면 숨죽이며 기다렸건만 도무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였다. 하지만 꽃과 잡초도 구분을 못 하는 남편이 꽃피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며 모과나무를 베어 버렸다. 내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아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새롭다.

몇 해나 지났을까. 언제 새순이 났는지 비스듬한 가지가 내 키보다 훌쩍 넘게 자라 있었다. 나는 꽃도 못 볼 바에야 저 못생긴 나무뿌리까지 없애리라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무심히 뜰을 둘러보던 나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 모과나무 앞에 섰다. 모과나무 가지마다 촘촘한 봉오리를 보란 듯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숲의 요정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은 아주 작은 양산 같은 꽃봉오리를. 나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식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큰 소리로 알렸다. 그러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담홍색 모과꽃을 볼 수 있었다. 모과를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모과꽃을 본 것은 처음이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오신 듯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다.

모과꽃을 보고 있노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내게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무얼 하든지 새 힘이 솟는 것 같다. 하루가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난다.

꽃을 보리란 소망을 접고 베어 버리려던 나무가 이렇게 내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나매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십여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많은 날들이, 현무암처럼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까지 움츠러들어 한없이 외롭고 적막했었다. 마음 다부지게 먹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과나무가 꽃을 피웠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벌써 꽃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꽃은 마치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 소망을 이루리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듯하다.



어머니

바람에 날리는 밀감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 찰 때면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진다.

나는 일찍 철이 들었던지, 어머니의 아픔이 마치 내 일처럼 다가왔었다. 그래서 용돈 때문에 졸라본 일도 없고 옷 사 달라고 떼를 쓴 기억도 없다. 어머니는 나 말고도 올망졸망한 아이들 넷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오직 자식 생각에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을 무엇 하나 사실 수 없었던 내 어머니.

비가 오는 날 말고는 늘 들에 나가셨는데 난 어머니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했다.

내가 십대 후반일 때, 아이들 과외 공부 지도를 마치고 호빵을 사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무엇 하러 이런 걸 사 왔느냐고 야단이셨다. 난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야단을 듣고는 다시는 아무것도 안 사오리라 결심했다.

여고를 졸업하고 고향 충주를 떠나 상경했을 때는 겨우 명절에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시집을 온 다음부터 낮엔 일하느라고 잠시 잊었다가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며칠 동안 잠만 잤다. 아마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랬나 보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싶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왜 이제야 나는 걸까. 난 참 숙맥이다.

널 시집보내면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던 어머니. 내가 결혼한 후로는 정말 다리를 뻗고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그 먼 곳 제주도로 시집을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못 보내겠다며 가지 말라고 붙잡던 어머니.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께 고생스럽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친정에 가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초라한 내 행색

이 안되었던지 이것저것 챙겨 주셨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셨던 걸까.

新正(신정)과 겹친 아버지 추도 예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처럼 친정에 다니러 갔다. 어머니를 뵙고 나서 우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 오겠다며 나섰을 때만 해도 씩씩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다.

서울 일을 마치고 친정으로 가다가 전화하였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기막힌 소식이 아닌가. 불과 하루 사이인데, 어제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다니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에 그리도 아옹다옹하시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 년을 못 넘기시고 아버지를 따라가셨다. 그렇게 일찍 가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실 일이지.

운명하시던 그날부터 장례식 날까지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평소에 든든한 배경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들 위로에도 그저 멍하니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따로 사진을 찾을 것도 없이 내 머리에, 얼굴에, 흐릿해진 눈빛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묻어난다.

음식을 만들 때든지 혹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는 듯하다.

내 아이를 보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더듬어 본다. 딱히 내게 무엇이 되라거나 어떻게 살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때때로 나의 언행 심사에서 어머니를 보는 듯하다.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 내 아이 앞에서 내 어머니처럼 삶을 몸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먼 훗날 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처럼 살 터이니 말이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몹시도 그립다. 마치 지금 충주 집으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만 같다.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신다면, 내 집에서 별미를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큰 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어머니.